

금3 은1 동1

태극궁사 '역시 세계 최강'

세계선수권 종합 우승... 5개 전종목 메달

한국이 2013년 세계 양궁선수권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최강 입지를 다시 딴다.

한국은 6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막을 내린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해 71개 출전국 중에 종합 1위에 올랐다. 덴마크가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2위, 네덜란드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로 3위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한국 양궁의 간판 오진혁(현대체육관)은 6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이승윤(강원체고)에게 지며 대기록을 아쉽게 놓쳤다.

지난해 올림픽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한 오진혁으로서는 2년 연속 메이저대회 개인전 타이틀을 석권이라는 유례없는 기록이 차지된 순간이었다.

또 한국은 기보파(광주시청)와 장혜진(LH), 유희희(예천군청)가 출전한 여자단체 결승전에서 벨라루스를 212-206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오진혁(현대체육관)과 기보파(광주광역시청)는 대회 혼성경기에서도 미국의 브래디 엘리슨-카투나 로리 그조를 148-139로 완파하고 정상에 올랐다.

태극궁사들은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압도적 경쟁력을 입증했다. 본선 토너먼트가 열린 안탈리아의 파밀론 스포츠센터에서는 태풍과 위력이 비슷한 바람이 불어 각국 선수들을 괴롭혔다. 그러나 한국은 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변수를 제어해 리커브의 5개 전 종목에서 메달 결정전에 진출하는 저력을 뽐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강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컴파운드 개인, 단체전에서 노메달에 그치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리커브의 선전과 달리 한국 컴파운드는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입상권에 들지 못했다.

한국 컴파운드 선수들의 기술은 세계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오랫동안 고도의 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은 리커브처럼 내공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원인으로 지적된다.

장영수 한국 총감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리커브에 걸린 금메달 5개 가운데 3개를 따냈다는 점은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컴파운드도 리커브처럼 치열한 국가대표 선발전, 찾은 국제대회 출전과 입상을 통해 경험을 쌓으면 실력이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박세영 앞 안현수, 막판 스퍼트

지난 6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13-201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 1000m 남자 결승전에서 중국 우다징, 러시아 인현수(러시아명 빅토르 안), 한국 박세영이 마지막 코너를 돌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11위... 양궁·역도서 5개 한국신기록 선전

전국장애인체전 폐막... 전남 14위 경기도 우승

지난 4일 폐막한 제33회 대구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광주 선수단이 종합순위 11위, 전남선수단이 종합순위 14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 종합우승은 금 134, 은 140, 동 113개를 획득한 경기도가 8연패 달성을 성공했으며, 누운우승은 개최지인 대구광역시(금 53개, 은 74개, 동 63개)가, 3위는 서울시(금 68개, 은 85개, 동 98개)가 차지했다.

광주시는 금 35, 은 41, 동 3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순위 11위(종합점수 8만9172점)를, 전남도는 금 24, 은 21, 동 26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14위(종합점수 7만962점)를 기록했다.

4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광주선수단이 모범선수단에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모범선수단상은 16개 참가시·도 가운데 페어플레이 정신이 강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선수단을 운영한 시·도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참가 시·도의 투표에 의해서 선정된다.

광주선수단은 광주시청 양궁 실업팀 김란숙이 4관왕, 역도 최근진·김형희·홍석진이 각각 3관왕을 차지했다.

대회 마지막 날인 4일 저녁장애축구팀이 남자 11인제 축구(IDD) 결승에서 강원을 7-0으로 꺾고 대회 3연패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선수단은 양궁 이미향이 여자리커브 개인종합(ARW2) 30m에서

25점으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는 등 금메달 5개를 획득했고, 역도 김

명은 3관왕에 오르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광주·전남 선수단의 한국신기록도 쏟아졌다. 광주는 사격 1·양궁 4·역도 12개 등 총 17개의 한국신기록을, 양궁에서 3개의 대회신기록을 작성했고, 전남은 양궁 1·역도 4개 등 총 5개의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광주 정진향은 양궁 여자 컴파운드 개인종합과 50m, 30m 내에서 4개의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또 광주 남동훈(역도 남자 -80kg급)과 홍석진(역도 남자 -97kg급), 최근진(역도 여자 -61kg급), 전남 선철성(역도 남자 -72kg급)은 3개의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한편 내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최 감독님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

기성용 귀국 대표팀 합류

소설 네트워크(SNS) 파문을 일으킨 기성용(24·선일랜드)이 최강희(54·전북 현대)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기성용은 "(최강희 전 감독에게)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며 "감독님이 마음을 여시면 그때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지"고 밝혔다.

기성용은 7월 SNS 파문이 드러나 팬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자신의 SNS에서 최강희 전 감독을 비난하고 대표팀의 과법을 조장하는 내용의 글을 적은 게 탄로난 것이다. 파문이 불거진 직후 에이전트를 통해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이후 대표팀에 연달아 낙마한 기

성용은 12일 브라질전, 15일 말리전을 앞두고 오랜만에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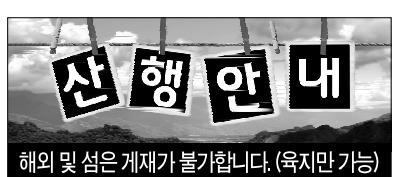
홍명보 대표팀 감독은 기성용을 호출하며 최 전 감독에 대한 기성용의 진심어린 사과가 대표팀 합류보다 선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감독에게 직접 만나서 사과할 계획에 대해 기성용은 "당연히 사과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감독님께서 마음을 여신다면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기성용은 향후에도 사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브라질과의 평가전을 앞두고 8일 정오부터 유럽과 선수 9명, 일본 J리그 소속 3명, 중국 C리그 1명 등 해외파와 이근호(상주), 김태환(성남) 등 국내파 2명이 차출된다. 광주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먼저 모여 훈련을 시작한다.

/연합뉴스



해외 및 섬은 계제가 불가합니다. (육지만 가능)

10월 9일(수)

▲광주체육시작회 10월 9일(수) 충남 보령 오서산, 07:50 백운문화센터, 08:00 교원체육회관, 08:10 문예예술회관, 09:00 동광주체육관, 09:20 *다음카페

광주평택선수회 011 946 3450, 011 259 0286

▲블랙아크 명신팀 10월 9일(수)~10일(목) 9시~10시(화) 202호 블랙아크 212-206으로 출전한 여자대회에서 벨라루스를 212-206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오진혁(현대체육관)과 기보파(광주광역시청)는 대회 혼성경기에서도 미국의 브래디 엘리슨-카투나 로리 그조를 148-139로 완파하고 정상에 올랐다.

태극궁사들은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월드컵경기장 레예친 05:00, 삼무지구 무각사 입구 05:10, 구 도교육청 입구 05:20, 첨단 쌍암원 주차장 05:30 *다음카페 광주산행자들이

▲010 444 8155 9015, 011 635 9510

▲광주디아트온라인 10월 13일(일) 원주 대단산봉선회 07:30~09:00 *다음카페 미토도요아워와회

▲010 472 4482 3475, 010 306 8627

10월 19일(일)

▲한울선수회 10월 19일(일) 경남 하동 육산, 08:00 산비단위 낙산사, 남광주종합체육관 04:30, 문예회관후문 05:00, 비엔날레 05:30 *네이버카페 한울

▲요산회 10월 19일(일) 북한산 숨은벼 능선, 무각사 04:00, 문예회관후문 04:05, 광주여성광장 04:20, 광광주 06:00 *다음카페 요산회

▲010 5152 2629, 011 606 4366

10월 22일(일)

▲빛고을무지개선수회 10월 22일(일) 강원도 원평 06:00, 산비단위 낙산사, 남광주종합체육관 04:30, 문예회관후문 05:00, 비엔날레 05:30 *다음카페 광주산행자들이

▲010 861 8472, 011 608 7672

10월 23일(일)

▲문화봉사단 10월 23일(일) 대전 청양군 청양읍 06:00~07:00, 문예회관 06:00~07:00, 청양군청 07:00~08:00 *다음카페 문화봉사단

▲010 472 4482 3475, 010 306 8627

10월 14일(일)

▲광주체육시작회 10월 14일(일) 일광 청사 07:30~09:00 *다음카페 광주체육시작회

▲010 360 829 0244

10월 29일(일)

▲광주평택선수회 10월 29일(일) 광주 평택 06:00~07:00, 문예회관 06:00~07:00, 평택 06:00~07:00 *다음카페 광주평택선수회

▲010 9715 1000, 062 515 7788

10월 24일(일)

▲문화봉사단 10월 24일(일) 대전 청양군 청양읍 06:00~07:00, 문예회관 06:00~07:00, 청양군청 07:00~08:00 *다음카페 문화봉사단

▲010 472 4482 3475, 010 306 8627

10월 25일(일)

▲광주체육시작회 10월 25일(일) 광주 평택 06:00~07:00, 문예회관 06:00~07:00, 평택 06:00~07:00 *다음카페 광주체육시작회

▲010 9715 1000, 062 515 7788

10월 26일(일)

▲문화봉사단 10월 26일(일) 대전 청양군 청양읍 06:00~07:00, 문예회관 06:00~07:00, 청양군청 07:00~08:00 *다음카페 문화봉사단

▲010 472 4482 3475, 010 306 8627

10월 27일(일)

▲광주체육시작회 10월 27일(일) 전남 창원 06:00~07:00, 문예회관 06:00~07:00, 창원 06:00~07:00 *다음카페 광주체육시작회

▲010 9715 1000, 062 515 7788

10월 28일(일)

▲문화봉사단 10월 28일(일) 대전 청양군 청양읍 06:00~07:00, 문예회관 06:00~07:00, 청양군청 07:00~08:00 *다음카페 문화봉사단

▲010 472 4482 3475, 010 306 8627

10월 29일(일)

▲문화봉사단 10월 29일(일) 대전 청양군 청양읍 06:00~07:00, 문예회관 06:00~07:00, 청양군청 07:00~08:00 *다음카페 문화봉사단

▲010 472 4482 3475, 010 306 8627

10월 30일(일)

</div